

경제

경제 돋보기

코스피 1600시대 ... 체크 포인트는?

금호타이어 733명 정리해고 통보

사측 "경영난 가중 ... 불가피한 선택"
노조 "수용할 수 없다" 전면파업 나서



지난 23일부터 전면파업에 들어간 금호타이어 광주공장에서 주인 잃은 헬멧과 장갑이 텅 빈 공장을 지키고 있다.

금호타이어가 24일 733명의 정리해고 대상자를 노조에 통보했다. 노조는 "절대 받아들일 수 없다"면서 전면 파업 및 대신 선전전 등 투쟁 수위를 높일겠다는 입장이나, 25일 협상에서 수정안을 제시할 것으로 보여 귀추가 주목된다.
사측은 24일 "극심한 경영 위기로 인한 경쟁력 확보를 위해서는 구조조정이 불가피하다"면서 "정리해고 대상자 선정 기준에 따라 우선 대상자 733명을 선정, 노조에 합의를 요청했다"고 밝혔다.
사측은 ▲근속연수(20점 배점) ▲근무태도(20점) ▲부양가족(5점) ▲보훈 여부(5점) ▲장제(20점) ▲회사관련 불법행위(10점) ▲포상(10점) ▲부부사원 우선 적용 등을 위주로 한 '해고 기준'을 적용, 대상자를 선정했다.
사측은 정리해고 기준에 따른 동점자가 87명에 달해 해고 대상자가 당초 706명(전체 인력의 13.3%)보다 늘게 됐다고 설명했다.

사측은 동점자의 경우 ▲조합 간부 ▲부양가족이 많은 근로자 ▲고연령자는 우선적으로 제외하는 동점자 처리 기준을 제시하고 노조측에 의견을 요청한 것으로 전해졌다. 고연령자는 퇴사 후 재취업이 어렵다는 점 등이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사측은 임금 협상이 진척을 보이지 않는 상황에서 올 상반기 영업 적자가 1천억원을 넘어선 만큼 경영 위기를 극복하고 경쟁력을 확보하려면 정리해고가 불가피하다고 밝혔다.
노조측은 모든 수단을 동원, 강력히 대응하겠다는 입장이다. 우선 사측이 통보한 대상자 명단을 공개하지 않고 26일 광주역 집회에서 소각하는 한편, 합의 없이 정리해고 계획을 추진하는 사측에 등 경영상의 책임을 노조에 전가하고 있다"면서 "차기 집행부

IT·자동차 '투톱'이 장세 주도
가격부담 갖지 말고 밀리면 사라

코스피가 단숨에 1,600선을 넘어선 13개월만에 최고치를 기록했다. 경기개선 기대감이 안락으로 확산되며 시총 상위주들이 중심으로 탄력있는 상승세가 만들어지고 있는 것. 단기 급등에 따른 부담과 중국 증시의 재조정 가능성, 미국 경기지표 변동성 등은 불안요인으로 지적된다. 다만 경기회복 흐름을 타고 증시도 꾸준한 상승세를 이어갈 것으로 보인다는 점에서 조정시 매수로 대응하는게 좋겠다는 의견이 중론이다.
IT와 자동차가 견인=24일 코스피지수는 전 거래일보다 31.24포인트(1.98%) 오른 1,612.22를 기록하며 연중 최고치를 갈아치웠다. 종가 기준으로 코스피지수가 1,600선을 웃돈 것은 1,626.14로 마감했던 지난해 7월24일 이후 약 13개월 만에 처음이다.
코스피지수가 1,600선을 돌파한 데는 시총 측면에서는 실적 호전 대형주, 업종별로는 전기·전자(TT)와 자동차 업종의 '투톱 체제'가 뚜렷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중주 HMC투자증권 리서처인

의지가 가시적으로 확인되고 있는 만큼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변동성이 커질 수 있다. 미국은 아직 리먼 브라더스 사태 이전을 회회하며 못했다라는 점에서 추가 상승 여력이 있지만 주택 및 소비지표가 한껏 높아진 기대를 충족시키지 못할 경우 실망 매물을 부를 수도 있다.
하저 큰 틀에서 증시 상승세가 지속될 것이란 지적이 많다. 다만 환율과 유가 추이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올 상반기 우리 기업들이 기대 이상의 성과를 낼 수 있었던 데에는 원화까지 약세에서 비롯된 가격 경쟁력과 유가 안정을 토대로 한 비용 절감 역할이 컸다. 원화와 원유 가격에 변화가 있을 경우 국내 기업들이 맞닥뜨려야 할 환경도 달라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박종모 국토교통연구원 광주지점장은 "환율이나 미국 경기지표 등 요인으로 조정을 받게 된다면 매수로 대응하는 것이 좋다"며 "대형주가 쉬어가면서 지수가 조정을 받을때 개별주로 순환매가 확산될 가능성도 있다"고 말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경기회복론 대세 ... 단기 급등 따른 조정은 필수
중국 증시·미국 경제지표·국제 유가 주목해야

광주신세계 '센텀시티' 꿈꾼다

오늘 개점 14돌 ... '초일류 유통기업비전' 발표

개점 14주년을 맞은 光광주신세계가 제2의 도약을 선언하고 지역 친화기업으로서 새로운 형태의 도심 랜드마크 기능을 수행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광주신세계는 24일 지역 현지 법인으로서 광주·전남을 대표하는 선진국형 유통 전문 기업으로 발전해 온 성과를 바탕으로 새로운 지역친화 기업으로 키운다는 '지역 친화형 초일류 유통기업 육성·발전 계획'을 발표했다.
광주신세계는 건설한 재무구조와 지역 내 투자가 가능한 법인 구조의 이점을 바탕으로 적극적인 투자를 통해 기업가치를 극대화한다는 것을 첫번째 목표로 설정했



의 센텀시티나 서울의 강남 센트럴시티와 같이 많은 사람이 즐기는 지역 최고의 쇼핑·관광 중심지로 육성하겠다"며 "현지 법인으로서 도시계획시설의 현실화 등 지역 내 분위기와 환경만 조성된다면 도심의 랜드마크로 발전할 수 있는 계획을 구체화해 나가겠다"고 밝혔다. 한편, 25일 오전 9시 40분 광주신세계 백화점 1층 광장에서 열린 개점 14주년 기념식 등이 참석한 가운데 개점 14주년 기념식이 열렸다.
/이민기자 emlee@kwangju.co.kr

光銀 '공공구매론' 시판
공기업 낙찰 업체 지원

광주은행은 새로운 대출상품인 '공공구매론'을 개발, 판매에 들어갔다고 24일 밝혔다.
'공공구매론'은 공공기관의 물품납품 경쟁입찰에 참가해 낙찰받은 중소기업이 공공기관에 납품할 물품을 생산하는데 필요한 자금을 대출해 주는 상품이다. 납품계약서나 공공기관 발주서에 의해 대출해주고 물품을 납품한 후 공공기관의 대금결제대위로 대출금을 상환하게 된다.
대출대상은 공공기관으로부터 낙찰받은 일정 신용등급 이상 중소기업으로, 대출한도는 발주서 금액의 80% 이내다. 대출기간은 발주일로부터 최대 180일 이내(납품기간+60일 이내), 대출금리는 일반대출보다 0.3%포인트에서 0.7%포인트까지 우대하고 변동금리를 적용하도록 했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지역 경기 다시 주춤

韓銀 경제동향 ... 소비·고용 위축 뚜렷

오랜 침체에서 벗어나 회복세를 보이던 광주·전남지역 경기가 다시 주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24일 한국은행 광주·전남경제동향에 따르면 광주·전남지역 경제는 6월 제조업 생산이 소폭 증가로 돌아서고, 7월 수출이 전월 수준을 유지하는 등 개선 조짐을 보였으나, 최근 소비가 위축되고 고용사정도 다소 악화되면서 회복세가 주춤한 것으로 조사됐다. 실제 제조업 생산은 5월 3.3% 감소이던 것이 6월 들어 1.1% 증가해 지난해 11월 이후 8개월만에 증가세로 돌아섰다.
7월 중 수출은 27억5천만달러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는 36.5% 감소하긴 했으나 전월 27억2천만달러와 비슷한 수준을 유지했다.
반면 6월중 소비는 대형소매점을 중심으로 판매가 좋고, 7월 들어 자동차 판매 증가세도 줄어드는 등 대체적으로 위축된 것으로 나타났다. 실제 지난 해 같은 기간 대비 대형소매점 판매는 5월 3.1% 증가에서 6월 0.1% 감소로 돌아섰고, 백화점도 1.0%에서 -0.9%로 다시 마이너스로 전환했다.
7월중 고용 사정은 비농림업 취

업자수가 감소하고, 고용률도 하락하는 등 다소 악화된 것으로 나타났다.
한편 7월중 소비자물가는 전월에 이어 오름세가 둔화됐고, 기업 자금사정은 어음부담율이 하락하고 자금사정BSI도 상승하는 등 개선되는 모습을 보였다.
/정필수기자 bungy@kwangju.co.kr

Table with market indicators: 코스피지수 1,612.22 (+31.24), 코스닥지수 511.36 (-0.78), 금리 (국고채 3년) 4.40% (+0.06), 원·달러 환율 1,240.00원 (-9.70)

Real estate advertisement for Asset Korea, featuring a large table of property listings with columns for location, area, price, and agent contact information.